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

이선진 (한림대학교 교수,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중국은 미얀마-운남성(云南省)간 송유관/가스관 건설 공사를 201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와 미얀마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가스 수송을 위한 송유관이 될 것이다. 인도의 앞마당이 되었던 벵갈만에 중국이 출현하게 된다.

필자는 2010년 7월 미얀마와 중국 국경도시를 여행하였다. 이 지역은 외국인 여행 제한 구역이라 어렵게 여행하였다. 많은 대형 화물트럭이 국경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미얀마로 넘어가는 화물의 상당량이 인도로 바로 넘어간다. 역사적인 “남부 실크로드”가 다시 형성되고 있으며, 동남아 화교 상인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진출을 위하여 매우 험준한 산맥을 뚫고 도로들을 완공하였으며, 국경 지역까지 연장하는 철도건설도 진행 중이다. 매년 동남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 전략의 깊이와 저력에 전율을 느꼈다.

목 차

1. 서론
2. 미얀마 국내외 정세
 - 가. 주요 국내외 정세
 - 나. 미국의 제재
3. 중국의 대미얀마 진출 전략
 - 가. 중국 전략의 행태
 - 나. 미얀마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원
 - 다. 고위인사 교류
 - 라. 무역
 - 마. 투자 및 경제 지원
 - 바. 중국 서부대개발전략과 연계
 - 사. 미얀마 상주 중국인
4. 중국의 대규모 건설 사업 추진
 - 가. 대규모 건설 사업
 - 나. 미얀마 전략의 성과
 - 다. 미국, 인도 및 일본의 대응
5. 한국의 대응
 - 가. 새로운 경제권의 등장
 - 나. 중국의 대북한 정책

1. 서론

- 중국은 1990년대 들어 미얀마 공산당 반군(叛軍)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하였음. 그 후 1988년 군사 쿠데타, 그리고 아웅산 수지여사의 가택 연금 등 인권 탄압으로 비롯된 국제적 제재와 고립 하에서도 미얀마 군부정권을 지지하여 옴.
-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운남성(云南省)을 교두보로 하여 미얀마와의 국경무역의 활성화와 경제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2010년 6월 원자바오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 미얀마 경유 송유관 및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함.(2013년 5월 완공 목표)
 - 중국은 2000년 이후 동남아에 대하여 연성외교(soft power diplomacy)를 추진하여 왔는바, 대미얀마 전략도 이의 일환.¹⁾
- 중국의 전략은 아세안-중국 남부-인도 북부를 연결하는 거대한 물류 및 교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경제권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대북한 전략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2. 1988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내외 정세

가. 주요 국내외 정세

- 1988년 대규모 유혈시위, 군부 쿠데타 및 집권
- 1990년 총선거, 아웅산 수지의 NLD 당 압승하였으나 군 부퇴진 거부, 아웅산 수지 가택 연금
- 1988/1991년 미국 대미얀마 통상 제재
- 1992년 이후 소수민족 게릴라 그룹과의 평화 협상
- 1997년 미얀마의 ASEAN 가입
- 2003년 아웅산 수지 재감금과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강화
- 2004년 10월 온건 성향의 Khin Nyunt 미얀마 총리 경질
- 2005년 12월 유엔 안보리, 미얀마 문제 논의(처음)
- 2007년 반정부 유혈 시위
- 2008년 대홍수 Cyclone Nargis 발생(십여만의 사망자)
헌법 제정(2010년 총선거 및 민정이양 예정)

나.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²⁾

- 1988년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철폐
- 1990년 통상 및 관세 제재법안 의회통과
- 1996년 미얀마에 대한 경제원조 금지 조치
- 1997년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 및 신규 무역거래 금지 조치
- 2003년 미국 내 미얀마 재산 동결, 무역거래 전면금지 등 제재 강화

3. 중국의 대미얀마 진출 전략 전개

가.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의 행태

-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은 아세안의 여타 국가들에 대한 전략과 동일하게 연성외교 전략(soft power diplomacy)을 구사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지지.
 - 고위인사 교류와 함께 경제인 교류 활성화가 특히 주목됨.
 - 경제 교류 강화, 무역 확대와 양국 교통망 연결 등 인프라 건설 지원.
 - 지방정부(云南省)를 앞장 세워, 중국의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전략과 연계.
 - 그 외 다자(소)지역협력 형태로 접근.

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원

- 중국은 종래의 미얀마 공산당 무장 반군에 대한 지원을 청산하고 “정부 대 정부(state-to-state)” 관계만 지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함.³⁾
 - 미얀마 정권의 최대 현안은 소수민족의 분립독립 투쟁을 종식하는 문제인바, 표면상 군부 정권의 존재이유(raison d’etre) 이기도 함.
 - 중국은 1980년대 말까지 중국/미얀마 국경지대에 준동한 미얀마 공산당 무장 세력을 지원하면서 미얀마 정부도 지지하는 이중적 외교 관계를 유지.
 -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당 대 당(party-to-party)” 관계는 청산하면서 미얀마 공산당 세력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태국 정부도 국경지역의 카렌(Karen)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지지와 지방정부(云南省)를 앞장 세워, 중국의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전략과 연계 등의 특징이 있음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얀마 정권을 지지해 왔으며, 유엔 기구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앞장 섰

-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도 “메콩강유역개발(GMS)”, “ASEAN” 등 지역협력기구에의 참여 등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 개방적 자세로 전환.
- 중국은 미얀마에 대한 최대 군사 지원국으로 알려져 있음.⁴⁾ 2009년 1월 중국 인민군 총참모장이 방문하였으며, 하위 사령부단위의 군 인사 교류도 활발함.
-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얀마 정권을 지지해 왔으며, 유엔 기구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앞장 섰.
 - 2005년 12월 최초 유엔 안보리 비공식 논의, 2006년 9월 안보리 공식의제 채택, 2007년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움직임.
 -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정권에 대한 강경 조치에 반대하거나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 행사.
 - 아세안은 ARF 등 지역협력 대화체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강경정책에 동조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미·아세안 간 갈등.(2005년 미국무부 장관의 ARF 불참이 그 예)⁵⁾

다. 고위인사 교류

- 중국은 지속적으로 정부 고위층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음. 지난 6월 원자바오 총리의 미얀마 방문이 있었으며 2009년 이후 금년 7월 까지 장관급 이상의 교류는 <표 1>과 같음.

<표 1> 장관급이상의 고위층 인사교류

(중국인사 미얀마 방문)
2009년: 인민군 총참모장(1월), 리창춘 정치국상무위원(3월), 외교부장(12월)
2010년: 당 대외연락부장(3월), 상무부장(3월), 원자바오 총리(6월), 부총리(6월)
(미얀마인사 중국 방문)
2009년: 총리(4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부위원장(6월), 정보부장관(10월), SPDC 1 서기(10월)
2010년: 외교부장관(6월), SPDC 1 서기(7월) 외 다수

- 한편, 정부 인사의 교류에 추가하여 중국기업들의 미얀마 방문도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 특이함. <표 2> 참조

- 반면, 일본, EU 기업들의 미얀마 활동이 여전히 저조. 미국 등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우려 때문임.(미얀마 주재 일본경제인 설명)

〈표 2〉 미얀마 방문한 주요 중국 기업 예⁹⁾

(2009년)
중국개발은행 총재, XJ 그룹회장, 중국 Grid 공사 이사장, 안휘 해외 건설 그룹 회장, 윈난 대외 전력투자 대표단, CDOI 사장, 화녕 난창 수력발전소 대표단, Northern Int's Holding Co. 회장, 산둥 기계장비 수출입공사 대표단, 중국비철금속 광업공사 회장, 중국 수출입은행장, 중국 석유회사 CNPC 대표단, 중국전력투자공사사장, CTIC 그룹 사장(겸 부이사장) 등
(2010년 상반기)
윈난 수력전력 사장, Sino 전력 대표단, 윈난 건설 그룹 대표단, CAMC 건설그룹 사장, 중국 전력투자 공사 부사장, Hanergy 사 CEO, Northern Int'l Holding 사 부사장, 중국 Guodian 사 부사장 등

라. 경제교류: 무역⁷⁾

- 중국은 동남아 다른 나라에 대한 진출 형태와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는 무역의 확대와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국/미얀마 무역의 특징은 첫째, 1990년대 이전에는 교역이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한 사실임.
 - 특히 1988년 미얀마가 중국과의 국경무역을 공식 허용한 이후⁸⁾와 2000년 이후에도 매년 22.7% 증가하였음. 2000년 이후 증가분은 중국의 정부 지원(비공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⁹⁾
- 둘째, 국경무역의 증가추세인바 양국 수출, 수입액의 57.8%, 81.5% 가 운남성 지역과의 국경무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참조
 - 중국/미얀마 국경 무역도시는 화물과 현지거주인/제3국 인사 통과가 가능한 “국가 1급지” 4곳과 화물과 현지 거주인의 통과만 허용하는 “국가 2급지” 7곳이 있음. 이에 추가하여 자연발생적인 국경 통로 70곳도 있다고 함.¹⁰⁾

중국은 동남아 다른 나라에 대한 진출 형태와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는 무역의 확대와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

국경무역의 상당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 미얀마의 교역에서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공히 50%를 상회함

〈표 3〉 중국/미얀마 무역에서 국경무역의 비중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중국의 수출 중 국경무역 비중	64.8%	52.5%	49.1%	57.8%
중국의 수입 중 국경무역 비중	54.3%	69.8%	79.3%	81.5%

source: 중국해관

- 셋째, 국경무역의 상당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사항인바, 상기 공식 통계에 추가하여 비공식 무역을 합할 경우 국경 무역의 실제 비중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임.
 - 예로, 2009년도 미얀마 수출입 통계는 대중국 수입을 12억 미불. 그러나 중국 통계(대미얀마 수출)는 22억불로 계상하고 있어 10억불 이상의 통계 차이.
- 현재 미얀마의 교역에서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¹⁾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공히 50%를 상회함.
 - 1988년 군부 정권 이전 미얀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일본, 유럽 등 공적 자금(ODA) 지원국들이었음. 그러나 이들의 ODA 지원 중단 및 경제제재가 발효되면서 이웃 국가, 특히 중국, 태국 등과의 국경 무역이 크게 증대됨. (<표 4>, <표 5>) 참조

〈표 4〉 미얀마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점유율 / 총수출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중국	0.0%	20.9%	11.3%	6.4%	6.2%
태국 ²⁾	9.5%	26.5%	16.9%	13.3%	33.0%
인도	7.9%	0.0%	12.3%	9.4%	14.9%
미국	3.6%	4.8%	6.6%	25.9%	10.9%
일본	8.8%	8.3%	7.1%	6.1%	5.1%

〈표 5〉 미얀마의 주요 수입대상국의 점유율 / 총수입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중국	0.0%	20.8%	25.0%	19.5%	33.3%
태국	2.2%	4.7%	14.2%	19.8%	16.1%
인도	0.1%	0.0%	1.2%	2.1%	3.2%
싱가포르	11.5%	25.0%	25.8%	17.1%	23.8%
한국	3.1%	4.3%	3.5%	11.4%	6.7%
말레이시아	2.5%	5.8%	9.3%	9.1%	5.1%

source: UN Comtrade

마. 경제교류: 투자 및 경제 지원

-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 기업의 대미얀마 직접 투자는 2007년 및 2008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표 6> 참조 2007년 말 현재 미얀마에 대한 비금융(非金融) 직접투자 누계잔액은 134백만 불임.

〈표 6〉 중국 기업의 대미얀마 직접 투자¹³⁾

(단위: 백만 US)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미얀마	-	4.0	11.5	12.6	92.3	232.5

* 주: 2006년까지 비금융 직접 투자, 2007/2008년 금융/비금융 직접 투자 합계

- 이에 반해 중국의 미얀마 지원 규모에 대한 중국 측 발표와 미국의 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회연구소(CRS) 조사결과는 2002년~2007년 사이 중국 정부의 대미얀마 지원 규모(투자 및 차관)를 31억불로 추산함.¹⁴⁾
 - 2010년 1월 중국 수출입은행 발표에 의하면 중국은 미얀마 최대 수력발전소 사업에 4.3억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¹⁵⁾
 - 실제 중국은 미얀마 내 다수의 댐건설과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외국직접투자(FDI)에 관한 미얀마 통계에 의하면, 최대 투자국은 태국,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투자 분야는 전력(전체의 46.8%), 석유/가스 개발(23.86%), 관광개발(9.8%) 순임.
 - 태국은 발전소 건설(생산 전력은 태국 수입),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여 최대 투자국이 되었음.

외국직접투자(FDI)에 관한 미얀마 통계에 의하면, 최대 투자국은 태국, 싱가포르, 중국 순이며, 투자 분야는 전력, 석유/가스 개발, 관광개발 순임

운남성은 중국/미얀마 국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의 전위(前衛)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

- 중국이 대규모 건설 사업(후술)을 본격화할 경우 중국이 최대투자국으로 될 전망.

바. 대미얀마 경제 진출은 중국 서부대개발전략과도 연계

- 중국의 대동남아. 미얀마 경제 진출 전략은 중국 내륙 발전계획인 서부대개발전략(西部大開發戰略)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운남성은 2000년부터 동남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또는 메콩강유역개발계획(GMS)¹⁶⁾틀 속에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의 수송망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건설을 지속해 옴.
 - 쿤밍(昆明) - 시쌍반나(西雙版納) - 라오스(태국) 연결 고속화도로 건설 완료.
 - 쿤밍(昆明) - 대리(大理) - 루이리(瑞麗) - 미얀마 연결 도로(일부 구간 고속도로) 건설 완료.
 - 쿤밍(昆明) - 옥계(玉溪) - 하구(河口) - 베트남 연결 고속도로 건설 완료.(이상 모두 개통 완료)
 - 이에 추가하여 철도 건설, 수력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진행 중.
- 운남성은 중국/미얀마 국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중국/미얀마 국경무역의 73%를 차지¹⁷⁾할 정도로 중국의 대미얀마 전략의 전위(前衛)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2006년 중동, 아프리카산 원유 및 미얀마산 가스 수송 경로로 미얀마/운남성 경유 루트를 최종 선정함.
 - 중국은 2004년 동북 방향(러시아 시베리아 원유/가스), 서북 방향(CIS 원유/가스)송유관에 추가하여 서남 방향(중동, 아프리카산 원유/가스) 에너지 수송로 개척을 추진.
 - 이와 관련 미얀마/운남성, 방글라데시/서장(西藏), 태국 경유 3개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06년 최종 미얀마/운남성 경유 노선으로 확정.¹⁸⁾

사. 미얀마 상주 중국인 증가

- 미얀마는 중국이 발주한 공사에 중국 노동자의 투입을 정식 허가함. 미얀마 통계는 약 300,000명의 중국인이 미얀마에 체류하고 있는 것

- 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불법 체류 중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함.¹⁹⁾
- 불법 체류까지 포함하면 200만 중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는 설도 있음. 중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이자 최대 상업도시인 만달레이는 20% 이상, 중국과의 국경무역 도시 라쇼, 무세 지역인구의 반수 이상이 중국계 화교.
- 필자가 접촉한 태국 학자는 중국의 경제 진출보다 중국인의 미얀마 체류규모가 지역 안보를 위협할 정도라고까지 언급.

4.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건설 사업추진과 그 영향

가. 중국의 대규모 건설 사업 합의

- 2013년 5월 까지 미얀마/운남성 경유 송유관을 건설예정임.
 - 2010년 6월 원자바오 총리, 미얀마 방문 시 정부 간 건설 협정을 마무리하였으며, 2013년 건설 완료와 함께 원유 수송 개시 목표.
 - 미얀마 해안-만달레이-무세(이상 미얀마)-루이리(瑞麗)-대리(大理)-쿤밍(昆明)까지 800Km~900Km 거리이며, 다음 단계로 쿤밍(昆明)에서 중국 타 도시 귀주(貴州), 광서성(廣西省)지역까지 연장할 계획.
 -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를 연간 1,200만 톤 수송할 계획.²⁰⁾ 이 양은 현재 말라카 해협(싱가포르-인도네시아)통과 원유 수송량의 70%에 해당되며 원유 수송로의 다변화가 가능.
- 미얀마산 가스 수입 및 가스송유관을 건설할 계획임.
 - 중국은 한국기업(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앞 바다에서 새롭게 발견한 대규모 가스전에²¹⁾ 대한 생산을 개시하는 대로 전량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양국 정부 간 협정 타결.(민간 기업 간 계약도 체결 완료)
 - 2015년 3월 가스 생산 개시와 함께, 가스관 개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이며, 가스송유관의 건설 경로는 상기 송유관 경로와 동일.
- 운남성/미얀마 도로 확충 및 철도망을 신규 건설할 계획임.
 - 운남성에서 미얀마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미얀마 경유하여 인도 방면으로 향하는 북선(北線), 방글라데시 방면으로 향하는 중간선(中間線), 미얀마 해안 방면으로 향하는 남선(南線, 송유/가스관 경로와 동일)의 3가지 노선이 있음.
 - 중국은 현재 남선(南線)에 이르기 까지 일반도로(일부 고속도로)를

**미얀마산 가스 수입 및
가스송유관을 건설,
운남성/미얀마 도로
확충 및 철도망 계획
및 미얀마 수력 발전소를
건설 지원예정임**

**중국이 2013년까지
미얀마를 경유하여
송유관/가스관을
완공하고,
벵갈만/인도양으로
통하는 수송로를 확보할
경우 중국은 중동과
서남아 진출의 지름길
확보, 에너지 수송로의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됨**

몇 년 전에 완성하였으나 앞으로 동 도로의 개선과 함께, 현행 쿤밍(昆明)-대리(大理) 철도 노선을 미얀마 국경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금년 또는 내년 중 완공)

- 미얀마 도로 건설에 대한 중국의 지원도 예상.
- 미얀마 수력 발전소를 건설 지원예정임.
-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이라와디(Irrawaddy)강의 북부 상류를 중심(중국 국경 인접 지역)으로 다수의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계획. <표 7> 참조

<표 7> 미얀마의 발전소 현황 및 추가건설 계획

	발전소 개수	발전용량(MW)
현행(2008.11 현재)	29	1,719.9
건설 중	29	19,413.8
향후 건설계획	14	13,971.5
합계	72	35,105.2

주: 건설 중이거나 향후 건설계획중인 발전소는 전부 수력발전소임

- 미얀마 측은 상기 건설 중(29개) 사업과 향후 건설계획(14개) 중 19개 사업이 이웃 GMS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3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중국과의 협력 사업.
- 중국 수출입 은행은 2010년 1월 미얀마 수력발전사업에 3.4억 미불 지원 계획을 발표. 이 협력의 특징은 발전량의 80% 이상을 중국으로 송전하기로 합의한 것임.

나. 중국 입장에서 본 대미얀마 전략의 성과

- 중국이 2013년까지 미얀마를 경유하여 송유관/가스관을 완공하고, 벵갈만/인도양으로 통하는 수송로를 확보할 경우 중국은 중동과 서남아 진출의 지름길 확보, 에너지 수송로의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됨.
- 중국의 에너지 안보 성과.
 - 동남아에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가스의 유일한 수송로. 동 해협의 봉쇄는 중국 에너지 수급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안보상 취약점. 미얀마 송유관 건설로 중국 에너지 다변화 전략에 큰 도움.

-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벵갈만 해역의 가스전 개발 참여에 보다 용이.

○ 인도양 및 서남아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 선점.

- 미얀마는 중국의 벵갈만과 인도양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특히 인도 해군의 주요 기지가 벵갈만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²²⁾
- 미얀마는 중국의 서남아 진출, 인도의 동남아 진출에 공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 중국은 향후 대규모 건설을 통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게 됨.

○ 중국의 동남아 진출 전략 및 서부대개발계획 실행에 큰 기여를 함.

- 중국은 2000년부터 중국 내륙지역의 경제성장과 중국남부의 지방경제와 동남아 경제를 연결하려는 전략을 추구해 왔는바, 이러한 중국 전략에도 큰 진전을 가져올 것임.²³⁾
 - 경제적으로 낙후된 운남성 등 내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
 - 바다가 없는(land-locked) 서부내륙 육로 수송로를 통킹 및 벵갈만의 해상수송로로 연결.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수출시장의 침체에 대비,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 지역 경제와의 연합 필요.
 - 강대국(global power)으로 성장하기 위한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확보 등.

다. 미국, 인도 및 일본의 대응

- 미얀마에 대한 중국 진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미국, 인도, 일본의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서남아 지역의 정치, 경제 정세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 인도와 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
 - 동(남)아시아 경제와 연결하려는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 일본은 동남아 지역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동남아 남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남아/인도 경제를 연결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음.(Nikai 제안)
- 이에 따라 미국, 인도는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본 민주당 정부는 국내정세의 불안정 때문에 아직 별다른 정책 전환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미얀마에 대한 중국 진출의 성과가 가시화 되면 미국, 인도, 일본의 전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서남아 지역의 정치, 경제 정세에도 구조적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미얀마 진출 전략과 관련, 동남아/중국 남부/인도 북부 지역에 걸쳐 새로운 경제권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인도양 진출 및 아세안-중국 남부~인도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체계의 발전에 촉매작용을 할 것임

- 2009년 오바마 미국 정부는 과거 부시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을 수정하여 “제재와 대화 병행” 정책으로 전환.
 - 인도는 미얀마 군부 실권자 탄 슈웨를 2010년 7월 25일~29일 공식 초청하여 2.5억 불 상당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 도로/철도 연결망, 농업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에 합의.²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는 아직 유효하며, 미얀마 총선거 실시 예정인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들은 관망하는 자세.
- 11월 총선거 이후 민정이양이 이루어지더라도 미얀마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 진출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는 그간의 산업화에 실패하여²⁵⁾ 아직도 농업위주의 산업 구조.
 -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군 통제경제 하에서 관변 기업인 외의 기업가를 육성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등.
 - 더욱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이에 추가하여 미얀마 화교 기업인들이 최근 해외 화교 기업(특히 싱가포르, 대만)들의 지원 하에 중국, 인도 등과의 국제무역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함.

5. 한국의 대응

- 중국의 미얀마 진출 전략과 관련,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① 동남아/중국 남부/인도 북부 지역에 걸쳐 새로운 경제권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②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임.

가. 새로운 경제권의 등장(emerging economic bloc)

- 중국, 아세안,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남부 국경 지역과 아세안 각국 사이 교통망을 상호 연결하고 전력,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추진해 옴.
 - ADB는 1992년부터 약 100억 미불을 들여 남북 통로 (중국과 아세안), 동서 통로(베트남/캄보디아, 라오스/태국/미얀마), 남부 통로 (베트남-캄보디아-태국) 교통 연결 사업을 추진.
 - 중국은 지난 10여 년 간 CLMV²⁶⁾와의 초보적 교통망 구축을 거의

- 완성하고, 추가적으로 250억불 아세안 기금 설립, 환 북부만 개발 등 2단계 사업 추진.
- 아세안은 2015년까지 ASEAN Economic Community(AEC) 설립합의, 역내 관세 철폐 및 역외 관세 단일화 창구 설립 등 경제 통합 추진 계획을 진행 중.
-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1월 전면 발효.
- 향후 중국의 인도양 진출, 총선 이후 미얀마의 민정이양 등도 아세안-중국 남부~인도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체계의 발전에 촉매작용을 할 것임.
- 미얀마 현지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경무역을 통하여 미얀마에 입국하는 중국 화물 20~30%가 인도로 향하고 있다고 함.
- 탄 슈웨 장군의 7월 인도 방문 시 인도/미얀마 철도, 도로 등 교통로 연계가 최우선 사업으로 논의됨.
- 아세안-중국 남부-인도 북부 경제의 연결은 거대한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산업화(부품산업) 기술 및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시장이 공존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될 것임.
- OECD 분석에 의하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 소비시장이 2000년도 10%에 불과하나, 2040년도에는 미국을 앞서 40%가 될 것으로 전망.²⁷⁾
- 일본 통상백서 2010년 판, 2020년 동아시아 소비시장이 미국, 유럽 시장 규모를 초월할 것으로 전망.

나.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에 비추어 본 대한반도 정책

- 중국은 최근 대외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수세적 성향을 탈피하고, 특히 지난 몇 년 간 동남아 지역에서 자신의 전략구상을 공격적(aggressive)으로 실천해 나가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무역환경의 변화, 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 국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 등 국제 정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함.
- 아세안/대만/홍콩과의 FTA, 인민폐의 국제화, 에너지 및 자원안보 외교, 지역협력/소지역 협력에서 미국의 배제 등.
- 동남아에 대한 연성외교의 성과에서 오는 자신감과, 주변 지역에서 자신의 외교영역을 확보해 나가려는 새로운 외교성향은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연성외교의 성과에서 오는 자신감과, 주변 지역에서 자신의 외교영역을 확보해 나가려는 새로운 외교성향은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북한 핵문제와 북한 북한문제의 분리(핵 관리) 자세, 교통망 연결 및 인프라 건설을 앞세운 경제 지원, 고위층의 교류, 중국경제발전과의 연계.(및 지방 정부를 앞세운 정책 추진)
- 미얀마, 베트남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될수록 중국의 연성외교는 그 효과를 더욱 발휘함.

다. 한국의 대응 방향 제언

- 11월 미얀마 총선 이후 미얀마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
- 동남아 진출 기업은 장래 동남아시아에 거대한 경제권의 부상에 대비하여 “국가별” 전략에 병행하여 “지역별” 전략도 마련할 필요.
- 중국의 대북한 연성외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연성외교와 미국의 강성외교(gunboat diplomacy)가 대조적인바, 한국은 양측의 대북한 정책 조화에 진력.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국문에디터: 강길효(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주석

- 1) 줄고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JPI 정책포럼 No. 2010-7, 2010.3) 참조
- 2) Michael Ewing-Chow, “First Do No Harm: Myanmar Trade Sanctions and Human Rights”(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pring 2007)
- 3) T. Kudo&F. Mieno, chapter 3 of “the Economic Transition in Myanmar after 1988” (2009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 4) David Steinberg, “Murma/Myanmar What everyone needs to know”(2010, Oxford University Press), 중국의 대 미얀마 군사 지원액은 30억 미불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음(121쪽)
- 5) 2005년 ARF 참석한 중국 외교부장도 동 회의 종료 전 미얀마 방문을 이유로 회의장을 떠나 아세안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는바, 미얀마 문제에 대한 미국, 중국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 예이기도 함.
- 6) 현지 보도와 상주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자료
- 7) T. Kudo&F. Mieno. ibid.

- 8) 미얀마와 중국의 첫 번째 국경무역합의서는 1988.8 Myanmar Export&Import Services와 “윈난 기계 수출입공사” 사이에 서명되었으며 그 후 정부 차원의 합의 서로 승격됨
- 9) T. Kudo&F. Mieno. ibid. Chapter 3 참조
- 10) 石田正美 편, “메콩지역 국경경제를 보다” 10장(아시아경제연구소, 2010.3 발간) 1급 지 4곳은 (1) 猴橋/Kambalti(미얀마) 2000년 개방, (2) 瑞麗/Muse 1978년 개방, (3) Wangding(중국)/Kyukok 1952년 개방, (4) 清水河/Chinshwehaw 1991년 개방 등
- 11) 미얀마가 공유하고 있는 국경선의 길이는 중국 2,185Km, 태국 1,800Km, 인도 1,463Km, 라오스 235Km, 방글라데시 193Km
- 12) 태국에 대한 수출이 1999년 이후 급증하였는바, 동 수출의 80% 이상은 가스 수출.
- 13) 중국 상무부 통계는 2003-06 비금융 직접투자, 2007부터 금융/비금융 투자를 통합하여 발표
- 14) CRS 보고서 “China’s Foreign Aid Activities in Afrida,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2009.2.25)
- 15) 2010.1.7 廣西省 南寧 개최 중국/아세안 FTA 발효기념 국제포럼에서 중국 EXIM 부행장 언급
- 16) 亞洲開發銀行(ADB)이 1992년부터 추진.
- 17) T. Kudo&F. Mieno. ibid.
- 18) 云南經濟信息網, “云南-中國下一個出海口”(2010.7.16)
- 19) David Steinberg ibid. 121쪽
- 20) 상기 云南經濟信息網, “云南-中國下一個出海口”(2010.7.16)
- 21) 대우 인터내쇼날 설명에 의하면, 2004-2006년에 걸쳐 3개 광구(Shwe, Shwe Phyu, Mya)에서 대규모 가스田을 발견하여 2007년 국제적 매장량 인증작업을 완료. 가채매장량 합계 4.5 TCF(2P, 공인인증 기준, 원유환산 8.1억 배럴). 생산 가스의 판매문제와 관련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중국이 전량 수입하기로 합의.
- 22) David Steinberg ibid. 160쪽
- 23) 참고 JPI 2010-7(2010.3) 참조
- 24) 2010.7.27 인도/미얀마 공동 성명 및 Eurasia Review 2010.8.5자(C.Raja Mohan 교수 기고)
- 25) Koichi Fujita et al. “Myanmar’s Economic Transforamtion after 1988” 서문: 미얀마는 2004년도 GDP 대비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각각 54.6%, 9.2%인바, 1990년도 57.3%, 7.8%와 비교하여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비교해도 한층 낙후된 산업화
- 26) CLMV: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4개국, 아세안 10개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임.
- 27) Homi Kharas,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OECD Development Center Working Paper No.285, 201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